

대연6동바르게살기위원회 추석맞이 환경정비활동 벌여



대연6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황상호)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24일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회원 11명은 관내 한누리어린이집 옆 동네체육공원 일대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경작지를 정비해 깨끗한 지역만들기에 앞장섰다.

이와함께 부산화망나무심기에 동참해 측백나무 15그루를 심었다.

황상호 위원장은 “우리 교유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이웃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정화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120m 담장벽화 탄생



남구자원봉사단체 반딧불(회장 신성일)에서는 지난달 26일 문현BB골프연습장 벽면에 길이 120m의 담장벽화를 그려 주민들의 문화와 정서를 일깨웠다.

동천배수펌프장 자율방재단 교육



남구는 지난 14일 문현2동 이마트 앞 동천배수펌프장에서 자율방재단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단원들은 펌프장 기기 작동요령과 스크린 협작물 제거 시연교육을 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 계단 난간 설치

문현4동 주민자치회(위원장 한용길)는 최근 연동마을 3길 주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에 난간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동발전기금 50만원으로 난간을 설치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등산로를 오르다



전국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장애인 등산로를 해남학교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고 있다.

남구는 대연6동 황령산 자락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 등산로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해남학교 뒤에서 황령산 정맥으로 이어지는

길이 382m, 폭 1.94m 규모의 목재데크 설치로 평소 장애로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들이 이제 편안하고 쉽게 산을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혀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던 지난 15일, 장애인 학생들과 등산로를 찾았다. 황준호·노진호군, 이현희·양 등이 바로 그들이다. 유선미 교사도 함께 동행했다.

황준호군(뇌성마비, 언어장애)을 휠체어에 태워 유 교사와 함께 밀면서 숲길을 따라 걷게 이어진 데크로드에 들어섰다.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목재데크는 편안함을 더해 주었고 양옆으로는 경관조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으로 관목심기가 한창이었다. 초입에는 경사로 인해 휠체어를 밀면서 오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중간쯤 다다르자 완만한 데크로드로 이어져 한결 수월해졌다. 등산로 곳곳에는 휠체어가 교차해 지나가고,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마련돼 있어 그곳에 기대어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퍼져가는 가을 산에 빠져보는 여유도 잠시 가졌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산행을 박차를 가해 20여 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동행자가 뒤에서 밀어줘야 할 정도의 경사지만 예전에 휠체어를 타고는 산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산행을 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면 황준호군은 오르던 내내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노진호군, 이현희·양 또한 새로운 경험에 마냥 즐거워했다. 유선미 교

382m 목재데크 등산로로 ‘안성맞춤’

휠체어 타고 오르내리며 건강 다져

사는 “장애인 등산로 조성으로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다”며 “한낮에는 햇볕으로 오르기가 힘들다. 차광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수목과 꽃이 한데 어우러져 볼거리가 다양한 등산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크로드 끝자락에서 느껴 본 성취감도 잠시, 일행은 가을 색이 짙어가는 황령산을 뒤로 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하산을 서둘러야 했다.

내리막에서는 가속도가 붙어 주의가 요망되었으나 10여 분 만에 다시 출발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장애인 등산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번 산행은 다른 산행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장애인 등산로가 조성된 이 일대에는 부산해남학교와 부산해성학교, 부산구화학교 등의 특수학교가 밀집해 있어 600여 명의 장애학생은 물론 일반등산로로 산행할 수 없는 모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휴식과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배 교감은 “장애인용 등산로가 끝나도 황령산 정맥과 연결돼 자연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태금 기자

효가 살아 숨쉬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박차’

럼인구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노인생활과학연구소(소장 한동희)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중이며 치매가족 지원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 노인회 남구지회에서는 선진지 산업시설을, 용호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행복지킴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9월말 현재 남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2,486명으로 남구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100~200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 출범

남구는 지난 14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종철 구청장과 시·구의원, 각급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사회각계가 함께 참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열렸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 김영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93개 국가 중 저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의 14%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출산을 저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인구 구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출산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본부 출범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 각 분야마다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웨딩 다이어트 사업’ 참여업체에 인증서가 교부됐으며 참여분야별 행동선언문 낭독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제작한 ‘초저출산의 심각성과 파급 영향, 그리고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영상물이 상영됐다.

2부 행사에서는 용당어린이집 원생들과 동산어린이집 원생들이 무대에 올라 리듬합주와 출산장려 캠페인 송을 울풍에 맞춰 불렀다.

한편 남구는 다문화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과 보육시설 야간 간식비 지원, 미숙아 선전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체중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출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용호골목시장 인정시장 됐다

시설·경영현대화 발판 마련 시장 활성화 기대



지난달 30일 열린 용호골목시장 인정시장 인증서 전달식을 마친 후 이종철 구청장과 김무성 국회의원 등이 시장상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용호동 용호골목시장(대표 진동근)이 지난달 28일 구로부터 인정시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용호골목시장의 인정시장 인증은 올 1월 인증을 받은 못골골목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용호골목시장 변화에서는 시장의 시설개선 및 상인 경영혁신을 주도할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초에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 활성화를 통해 상권 재생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향후 구청과도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

로이 다지고 있다.

이로써 용호골목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용호동 494-19번지 일원의 용호골목시장은 지난 75년 문을 연 재래시장으로 현재 108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시장 인증을 위해 노력해 온 진동근 대표는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 재래시장 인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남구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 생 모 집

고등학교를
2년만에 졸업!!

- 고등학교를 진학 못한 청소년!!
-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학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학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마십시오!

본고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그만둔 당시학력을 인정, 단축졸업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진학의 꿈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11월30일까지 원서접수
- 접수준비물 : 주민등록등본1통, 사진(3×4) 3장
 -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월~금, 저녁6시~9시까지)
 - 만16세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직업상 사정이 있는 분은 상담바람)

부 산 경 호 고 등 학 교 장

문의전화 : (051)524-0932, 523-0209, 011-9532-3403

성인 중학생(무료교육)·고등학생 모집

-1년 3학기제로 2년이면 졸업 상급학교 진학-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배움에의 문을 두드리세요!!!

- 대 상 -배움에 목마른 성인여성 누구나
- 모집인원 -중학교 2학급(90명), 고등학교 2학급(90명)
- 접수기간 -선착순 모집 중
- 특 전

1.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중학교) 2. 중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3. 통학버스 무료운행(서면 전철역에서 10분 거리 위치)
4. 국·영·수·한문·컴퓨터 등 기초부터 쉽게
5. 교육부인가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문의 (051)805-6131, 6132, 6133, 6134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성인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2-56번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갖춰

악취제거 병해충 발생 억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대연3동 장백아파트

대동골의 한 아파트가 최근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추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꾸고 있다.

대연3동 장백아파트는 지난 7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3대를 설치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자체 처리하고 있다.

처리기는 24시간 작동하며 1대당 하루 90kg의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 발효로 완전 분해하고 있는 것.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후 입주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우선 악취발생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쥐와 고양이, 그리고 모기와 같은 해충도 찾아 볼 수 없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287세대 입주민들은 처리기 설치를 반기고 있다. 매월 30만원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있다.

시설은 부녀회 소속 회원들이 교대로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성공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와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장백아파트를 찾고 있다.

윤정숙 부녀회장은 “이전에는 음식물



장백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앞에서 봉사하고 있다.

쓰레기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고 쥐와 고양이가 들끓어 주민들의 고충이 없지 않았지만 처리시설을 갖춘 후부터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제거되고 각종 해충들도 사라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밝혔다.